

오는 손님 반기는 불교로...

■ '새 신도 포교전략' 필요하다

한국불교대학 1인당 5명 목표 11가지 구체적 포교방편 '눈길'

“오늘부터 동네 미장님 아주머니부터 포교 하세요.” 지난 7일 영남불교대학으로 더 유명한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신년교례회 자리에서 회주 우학스님은 ‘새 신도 포교전략’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교전략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개인당 포교 5명 목표 세우기’를 선언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11가지 방편까지 스님이 직접 제시했다. 포교 전단지 돌리는 일이 자기 체면을 깎아내린다는 생각을 거두고 최소 1만장 이상 홍보물을 나눠줘라, 포교하면서 당하는 수모를 각오하라, 불교대학 입학원서를 지참하고 다니다 즉시 쓰게 하고 학비는 일부라도 꼭 받아라, 엄청난 규모의 대관음사 법당을 직접 보여줘라 등이다. 이같은 포교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대관음사 신도는 기수별 200~300명씩 날마다 대구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범복에 사찰홍보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는 기본이고 전단지과 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5~6시간을 거리에서 보낸다. 결실도 그만큼 크다. 매년 3월 새 입학신도가 주어간을 합쳐 최대 4000명에 달한다.

교회나 성당이 가족, 친구를 동반하고 오기만 해도 그들만을 위한 ‘찬양’을 해주는 신교대 뉴얼을 갖고 있는데 반해, 불교계는 초발심자를 위한 포교전략이 미진하다.

앞서 대구 한국불교대학처럼 포교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서울 봉

은사도 새 신도 포교전략이 잘 수립된 사찰 중 하나다. 봉은사는 ‘새 신도를 위한 입문교육’을 내걸고 일요일 낮 한때 경내 수련원에서 절하는 법이나 불자예절 등을 무료로 지도하는 강좌를 펼친다. 입문과정을 마친 신도는 ‘봉은기초학당’에서 3개월간 중단인가 기본교육과정을 받게 된다. 봉은사는 도량에 ‘새 신도 안내장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염주나 다포, 법요집 등을 선물꾸러미처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한다.

부산 미타선원도 사찰규모는 크지 않지만, 포교매뉴얼이 갖춰진 보기 드문 도량이다. 매년 3월과 9월 불기예절마다 새 신도 대상 입문반을 운영하고, 주지 스님이 직접 지도법사로 나선다. 김종현 미타선원 중무실장은 “사찰에서 소임을 보는 전체 신도가 새 신도에 대한 다양한 중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입문반을 마치면 ‘1080만다라 가족회원’이 되고, 이어 선 수행학교나 명상강좌 등을 선택 수강하는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규모를 떠나서 주지 스님의 포교역량에 따라 새 신도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지방 사찰도 있다. 거창 죽림정사 주지 일광스님은 “어색해하는 새 신도들과 마주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상담을 해주고 마치 과제를 내주듯 기도정진을 권유하면서 긴밀한 인연을 이어나간다”며 “‘내 신도-우리 스님’이란 신뢰와 애정이 깔린다면 새 신도라 해도 마음의 문은 열리기 마련”이라고 귀띔했다. 평창 월정사도 올해 처음으로 ‘초발심자를 위한 새 신도 교육’을 시작했다. 사찰예절을 시작으로 부처님생애, 기본 교리를 지도하면서 수계식으로 화합하는 일명 ‘4주 코스’가 올 1월부터 1년 내내 가동된다.

허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절에서 노니 신나요”

지난 22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설맞이 민속놀이가 펼쳐졌다. 부모님과 같이 참석한 유아들은 한복을 곁에 차려입어 흥을 더욱 돋웠다. 고무신 날리기, 투호 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등 지루할 틈이 없이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성불도 놀이를 쉽게 응용한 유희놀이로 마무리 됐다. 사진은 줄다리기를 하는 아이들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지금 여기, 붓다로 살자’

포교원장 지홍스님, 신년회건 “신행혁신운동으로 불교 중흥”

“탈종교화 시대, 젊은 불자의 감소, 개인 위주의 신앙형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여기-붓다로 살자’라는 신행혁신운동을 펴고자 합니다. 이 운동을 전법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로 삼고 한국불교를 중흥시켜 나가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강조하며 다양한 포교정책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신행혁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 당면과제라고 못 박을 만큼 현 시기를 포교원은 이같은 현상을 극복하고 한국불교

한국불교의 중차대한 위기상황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부문조사에서 전체종교인구 감소율보다 불자인구 감소율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불교가 타종교보다 신도 고령화 비율은 높고 청년층은 감소세에 빠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게다가 포교원은 불자들의 신앙형태가 개인적인 희구(希求)와 안심(安心) 차원에 머물러 살고 수행이 일치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가 불자로서의 자부심이나 가치관 또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사회적 불성구현에 무심함으로써 기존의 불교 호감층마저도 이탈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내다봤다.

포교원은 이같은 현상을 극복하고 한국불교

의 중흥을 이루기 위한 신행혁신운동으로 ‘지금 여기-붓다로 살자’를 제안했다.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고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부처님의 본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신행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즉, 불자들의 일상생활속에서 수행하고 봉사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평화롭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자는 새로운 신행운동이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포교는 한 곳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포교원과 사찰, 스님, 신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신행혁신운동이 구호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좋은 작품 위해 더욱 정진해 주길”

불교신문 신춘문에 당선작 시상

불교문인의 등용문이자 한국불교문학의 산실인 ‘2017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상식이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점검실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서는 불교신문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2017 신춘문예’ 당선자 이선재(단편소설), 전은숙(동화), 김성신(시·시조), 김기영(평론)씨에게 당선패와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상금은 소설 500만원, 동화와 시, 평론 당선자에게 3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전달됐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문학의 창작 활성화와 불교문화에 기여하고 있는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8일까지 한 달 동안 공모한 ‘2017 불교신문 신춘문예’에는 시·시조 1900여편을 비롯해 동화 100여편, 단편소설 100여편, 평론 10여편 등 모두 2100여편이 최종 응모됐다. 고은 시인, 한승원 소설가, 문학평론가 방민호 서울대 교수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시·시조 부문에 김성신 씨의 ‘운장대’, 단편소설 부문에 이선재 씨의 ‘산뿔꽃나무 아래’, 동화 부문에 전은숙 씨의 ‘할아버지의 선물’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수년 동안 당선작을 못낸 평론 부문에서 김기영 씨의 ‘사막 위의 별-운후명 <둔황의 사람> 작품론’을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3270호는 2월4일 발행됩니다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점검실에서 열린 ‘2017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상식’ 기념사진. 왼쪽부터 수상자 전은숙(동화), 이선재(단편소설)씨와 본지 발행인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성신(시·시조), 김기영(평론)씨.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중앙승가대학교 후원회
5000원 1계좌 동참불사
 T.031-980-7892~3
 국민 282401-04-222021(중앙승가대학교)

- ‘최응천 교수의 한국법종 순례’ 5면
- ‘승보공양운동’ 별지 4개면 발행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法寶宗刹 海印寺
 www.haeinsa.or.kr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계종 인재 산실의 명문가

해인사 승가대학 입학안내

- 모집대상**
- 편입생, 재입학생 : 2학년 0명
 - 신입생 00명
- 구비서류(상단 첨부파일 / 해인사 홈페이지 서류 확인)**
1. 입학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 양식 / 해인사에 와서 안내에 따라 작성) 1부
 2. 자기소개서 (자필-6하원칙) 1부
 3. 성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 (총무원 발급)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적 확인용) 각 1부
 5. 건강진단서 (행차교육원 당해연도 수수료 제외) 1부
 6. 은사스님 추천서 1부
 7. 은사스님 인적 사항 [법명, 본명(한글·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8. 승가대학 학력 이수 증명서 (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준비물**
1. 사진 (3×4, 만의가사 복장) 3매, 여권사진 2매 (여권발급용)
 2. 만의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3. 주민등록 주소 이전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22 해인사승가대학 (필수사항)
- 전형방법**
- 서 류 접 수 : 불기2561(2017)년 3월 12일(일요일)
 - 입학결과 일시 : 불기2561(2017)년 3월 13일(월요일) 오전 8시
 - 합격자 발표 : 불기2561(2017)년 3월 13일(월요일) 오후 6시
 - 입 학 식 : 불기2561(2017)년 3월 14일(화요일)
- 문의**
- 50200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22 해인사승가대학
 - 전화 (055)934-3081, 3100 • 학감스님 (055)934-3046, 010-9496-3059